

# '인구절벽 막기' 지역별 컨트롤타워 구축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지방의회별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되는 등 지역 단위의 컨트롤타워가 구축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전담팀이 조기 구축되며 이미 구축된 전담팀에는 내실화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지역단위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지원된다.

행안부는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자체간 정책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부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응하는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하고 지방의회별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등 중앙-지방간 대응체계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의 의견이 중앙의 인구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지자체에 저출산(인구정책) 전담팀도 구축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인구정책의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 조속히 설치하고 이미 설치를 완료한 전담팀에는 ▲역량개발과정 등 담당 공무원 교육 확대 ▲우수지자체, 전문가 등과 현장 자문상담(컨설팅) 등 내실 운영을 기할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과 우수시책도 발굴한다.

행안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과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및 시책을 발굴하고 특교세 등 재정지원, 포상 등을 통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지자체 또는 민간위탁시설이 분산 제공하고 있는 주거·결혼·임신·출산·보육 등 서비스를 공간적으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지원시책의 연계성·통합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율리 복지부와 공동 추진중인 '다함께 돌봄사업'을 통해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지역공공시설을 활용해 지역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업성과를 창출하고 성공모델화해 추가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지방간-민간이 공동으로 이벤트를 마련해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빅데이터 공룡기반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별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 행안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 마련 시도별 저출산·고령사-저출산대책특별위 구성

을 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해 지자체

를 지원키로 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은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서로 연대하여 동반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순백의 구절초. 쌀쌀한 가을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오후 경남 남해군 이동면 인근 한 산기슭에 가을의 전령 구절초가 꽃망울을 터뜨려 눈길을 끌고 있다.

## 광주소방본부 인명구조견 없어...확충 시급

전국 26마리 불과...9개 시·도 인명구조견 없어

재난현장 등지에서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을 벌이는 인명구조견이 광주에는 한 마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견과 훈련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명구조견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보급된 구조견은 26마리로 집계됐다.

광주에는 보급된 구조견이 없

며, 전남은 3마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운용 현황은 중앙 5마리, 서울 3마리, 부산 3마리, 경기 3마리, 강원 3마리, 경북 3마리, 경남 3마리, 제주 1마리이다.

광주를 포함, 충북·충남·전북·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 등 9개 시·도 소방본부에는 인명구조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견은 재난·산악·수난·사체탐지견으로 분류된다. 전국에 보급된 구조견 가운데 재난 구조에 특화된 구조견은 1마리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산악 구조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운용실적을 보면 2015년의 경우 609회 출동해 생존자 구조 17명, 사망자 발견 12명으로 출동 대비 구조 비율은 4.8%였다.

지난해에는 589회 출동해 생존자 구조 14명, 사망자 발견 17명으로 구조 비율은 5.3%였다.

올해 8월까지의 429회 출동해 생존자 구조 17명, 사망자 발견 7명으로 구조 비율은 5.6%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021년까지 전국에 인명구조견 75마리를 배치할 계획이다.

## 신생아 결핵예방접종에 경피용 BCG백신 임시 도입

내년 1월15일까지

주사형 백신의 국내 수급불안에 따라 내년 1월15일까지 3개월간 생후 4주 이내 신생아 대상 결핵 무료예방접종에 경피용 BCG 백신(도장형)이 임시 사용된다.

질병관리본부는 16일 피내용 BCG 백신(주사형)의 국내 수급 불안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피용

BCG 백신으로 대체해 이날부터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무료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4주 이내 신생아 ▲생후 59개월 이하 미접종 유아 ▲생후 3개월(90일) 이후에는 결핵과부반응검사(TST)를 통한 결핵균 감염여부 확인 후 음성(또는 위양성)인 경우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대상

영유아 보호자에게 개별 휴대전화 알림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해당 영유아 보호자는 접근처 보건소 등에서 결핵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임시예방접종 실시 참여기관은 온라인(cdc.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참여기관이 아닌 곳은 경피용 BCG 백신이 유류로 제공되기 때문에 방문진 확인이 필요하다.

## '정원초과' 로힝야 난민선 전복 12명 사망

군의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던 미얀마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가 탄 배가 16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어촌 인근 뱃골판에서 뒤집혀 어린이 6명을 포함한 12명이 사망했다.

방글라데시 경찰에 따르면 생존자들은 난민선에 65명이 승선해 있었으며, 절반 이상은 어린이였다고 진술했다.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넘어오다 전복사고로 사망한 로힝야는 184명에 달한다.

마을 주민들은 경찰에 시신 5구를 수습했으며, 적어도 21명이 구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엔에 따르면 지난 8월25일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출발한 로힝야 폭력사태로 53만700명이 국경을 넘었다. AFP는 방글라데시 정부를 인용, 난민 중 1만3751명은 부모를 잃은 고아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 스코틀랜드서 길잃은 관광객 일가족 구조돼

영국 스코틀랜드의 먼 오지에서 모험 관광을 즐기던 중 길을 잃은 6명의 일가족이 해리 포터 소설에 나오는 호그와트 익스프레스의 증기기관차에 의해 구조되는 '마술같은 상황'이 13일(현지시간) 실제로 일어났다.

존과 헬렌 클루에트 부부와 4명의 자녀들은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에 있는 한 오두막집에 머물며 카누를 타고 모험을 즐기던 중 불어난 강물에 카누가 휩쓸려 떠내려 가면서 길을 잃었다.

클루에트 부부와 6살, 8살, 10살, 12살의 자녀들과 함께 높이 많은 광활한 소택지를 가로질러 돌아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경찰에 구조요청 전화를 했다.

스코틀랜드 경찰은 산악 구조팀이나 구조 헬기를 파견하는 대신에 완전히 마술과도 같은 구조방법을 선택했다. 이 가족이 해리 포터 영화 촬영 때 사용되었던 철로에 가까운 곳에 발이 묶인 것을 알고 철도당국과 기관차 운전자들에게 연락해서 열차 구조팀을 마련한 것이다.

이들이 자코비트인 이 열차는 웨스트 하일랜드 철도회사에서 관광용으로 사용되던 일명 해리포터 열차로 해리포터 영화들에도 나오는 글렌 피너 고가교(Glenfinnan Viaduct)를 건너다니는 기차이다.

## 이집트서 IS 무장세력이 국경검문소 공격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로 추정되는 세력이 15일(현지시간) 이집트의 분쟁지역인 시나이 북쪽의 검문소 6곳을 동시 다발로 공격해 군인 7명을 살해하고 3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이집트 보안군과 병원 의료진이 말했다.

이집트군은 이날 세이크 조세이드 마을 부근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된 이 기습공격에 수십명의 무장 세력이 가담했으며 증기기관차와 박격포로 검문소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을 격퇴하기 위해 아파치 헬리콥터의 지상 사격이 가해졌다고 익명을 요구한 군 장교 소식통이 말했다.

이집트군은 이 날 24명의 공격군을 사살하고 그들이 사용한 SUV차량 두 대를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현장 부근은 무장세력 잔당을 색출하기 위해 군대가 샅샅이 수색작전을 펴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

## 소말리아 폭발물 공격 사망자 276명으로 늘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물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276명으로 늘어나고 부상자도 약 300명에 달한다고 15일 안다리안 오스만 소말리아 공보부 장관이 발표했다.

트럭을 이용한 이번 테러 공격은 소말리아 역사상 최대의 단일 공격으로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말리아 정부는 극단 이슬람주의 조직 알샤바브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이에 답하지 않고 있는 알샤바브는 알카에다 분파로서 2010년대 초 무정부 시절 수도 모가디슈를 2년 넘게 장악하면서 엄격한 이슬람 샤리아 율법을 강행했다.

소말리아와 케냐가 이끄는 아프리카연합군에 의해 축출된 알샤바브는 이후 두 나라에서 테러 공격을 계속하면서 최대의 사상자를 낸 아프리카 극단 조직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한 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소말리아 사상 최대의 이번 테러에 대해 "속이 뒤집힌다"면서 테러리즘에 대해 모두가 단합해야 한다고 15일 밤 트위터에 올렸다.

뉴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